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numbers

vol. 347 | 2026.8.25.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2. 세계관의 충돌; 분리신앙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
학교와 교회 가르침 사이
'세계관 충돌' 경험!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동성혼 인식
2. 수저계급론 인식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 학교와 교회 가르침 사이 ‘세계관 충돌’ 경험!

오늘날 다음세대는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적 가치관과 학교/사회에서 접하는 세속적 가치관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2026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사)꿈이 있는 미래·목회데이터연구소 공동 출간)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59%)이 학교와 교회 가르침 사이에서 ‘세계관 충돌’을 경험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 이상은 신앙과 일상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분리신앙’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교회 현장의 대응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회학교 사역자의 73%가 ‘현재 교회 교육은 성경적 가치관의 일상 적용을 돕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정기적으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교회는 23%에 불과했다.

이번 <넘버즈 347호>에서는 다음세대가 경험하는 ‘세계관 충돌’과 ‘분리신앙’의 실태를 살펴보고, 성경적 가치관 교육의 방향과 실질적인 목회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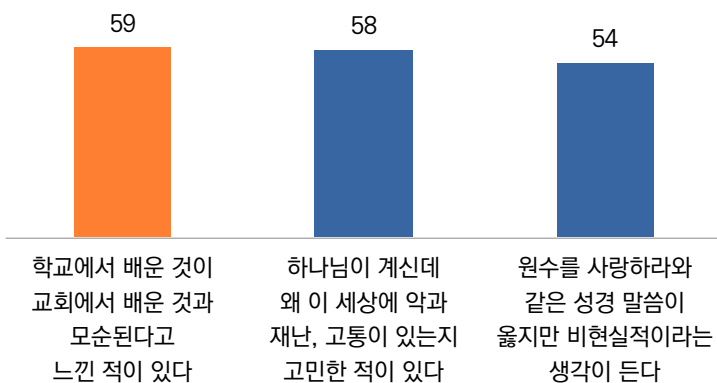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일반 학생	학부모	담임목사	사역자	교사
조사 대상	만 14세~19세 개신교인 학생 (교회 출석 학생)	만 14~19세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교회 출석자)	교회학교 부서가 있는 한국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역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표본)	총 600명 (유효표본)	총 500명 (유효표본)	총 300명 (유효표본)	총 43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학급별 비례할당 추출 (자녀기준)*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4%p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0%p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01월 22일~02월 06일			2026년 01월 22일~02월 02일	2026년 01월 19일~02월 28일
조사 의뢰 기관	(사)꿈이 있는 미래(꿈미)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 학교와 교회 가르침 사이 '세계관 충돌' 경험!

- 기독교 중고생(교회 출석자)이 실제 삶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것과 모순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주+가끔 그렇다)이 59%로 나타났다.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이 학교와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서 세계관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 이어 '세상의 악, 재난, 고통에 대한 고민'(58%), '원수 사랑 등 성경 말씀의 비현실성에 대한 고민'(54%)도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림] 성경적 가치관 갈등 (교회 출석 중고생, '자주+가끔 그렇다' 비율*,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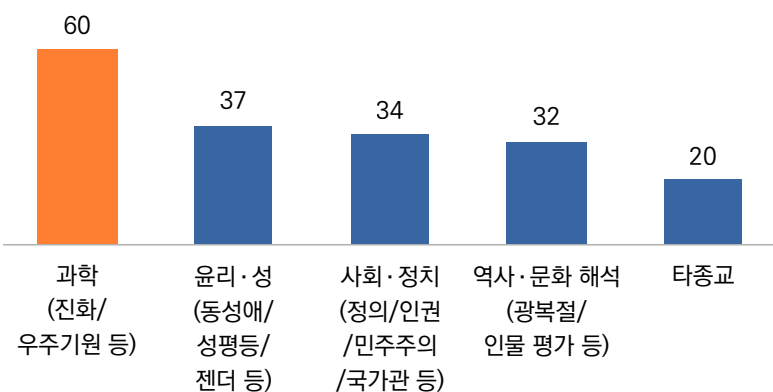


*5점 척도

교회-학교 학습 간 가장 모순을 느끼는 분야 1위, 과학분야(진화 등)!

- 교회와 학교 학습 간 모순을 느끼는 분야로는 '과학'(진화/우주기원 등)(6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으로 '윤리·성'(37%), '사회·정치'(34%), '역사·문화 해석'(32%)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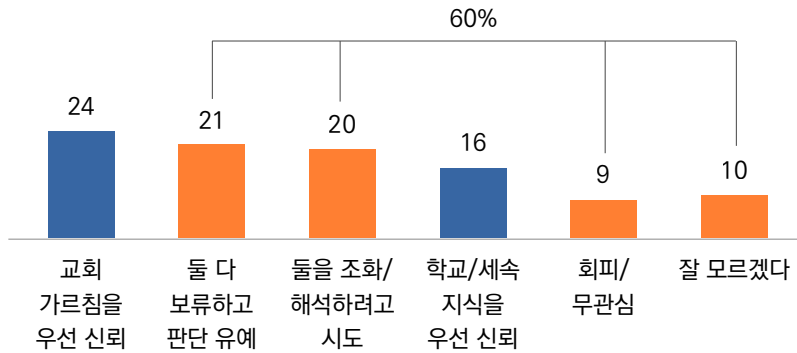
[그림] 교회 가르침과 학교 학습이 모순된다고 느낀 분야 (학교-교회 학습이 모순된다고 느낀 교회 출석 중고생, 중복응답, 상위 5개, N=295, %)



모순점 발견 시, 교회 가르침을 우선 신뢰하는 학생, 4명 중 1명꼴!

- 교회 가르침과 학교 학습 내용 간 모순을 느꼈을 때, 학생의 60%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판단을 유예(21%)'하거나, '조화를 시도'(20%), 혹은 '회피/잘 모르겠다'(19%)는 응답을 보였다.
- 반면 교회 가르침을 우선 신뢰하는 경우는 24%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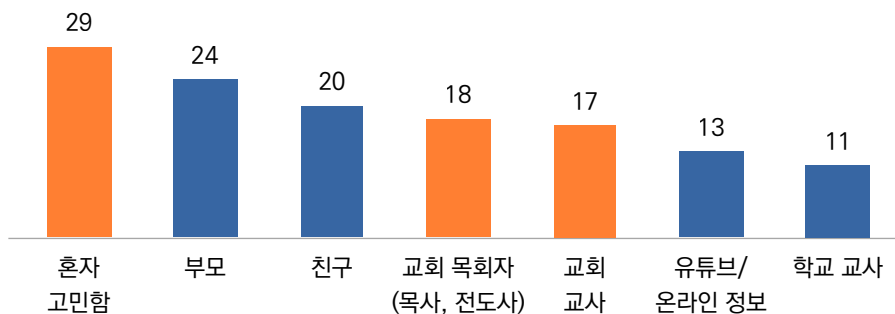
[그림] 교회 가르침과 학교 학습 사이 모순점 발견 시 태도 (학교-교회 학습이 모순된다고 느낀 교회 출석 중고생, N=295, %)



모순 느낄 때, 목회자/교사에게 조언 구한다, 10%대에 그쳐!

- 학교와 교회 교육 내용 간 모순점 발견 시 조언을 구하는 대상으로 '혼자 고민함'이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모'(24%), '친구'(20%) 등 사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회 목회자'(18%)나 '교회 교사'(17%) 등 교회의 공식적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 학생들이 모순을 발견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는 신뢰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를 신앙 안에서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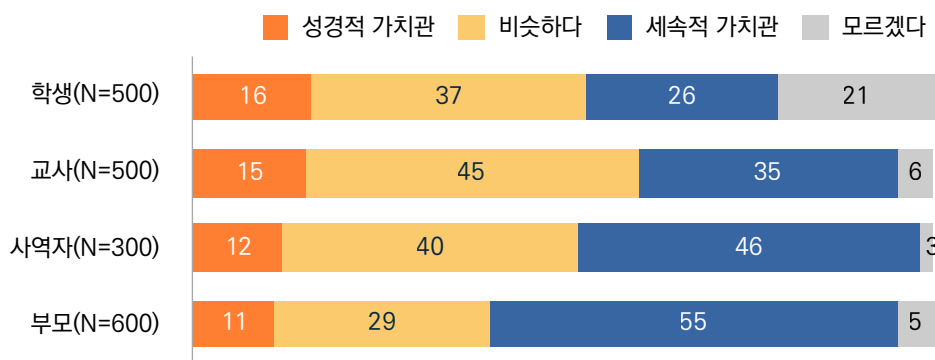
[그림] 모순점 발견 시 조언 대상 (학교-교회 학습이 모순된다고 느낀 교회 출석 중고생, 중복응답, 상위 7개, N=295, %)



기독교 중고생,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속적 가치관' 영향 더 크게 받아!

- 기독교 중고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든 그룹(학생, 교사, 사역자, 부모)에서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응답 그룹별로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응답은 부모(5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역자(46%), 교사(35%), 학생(2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경적 가치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응답은 모든 응답자 그룹에서 10%대(11~16%)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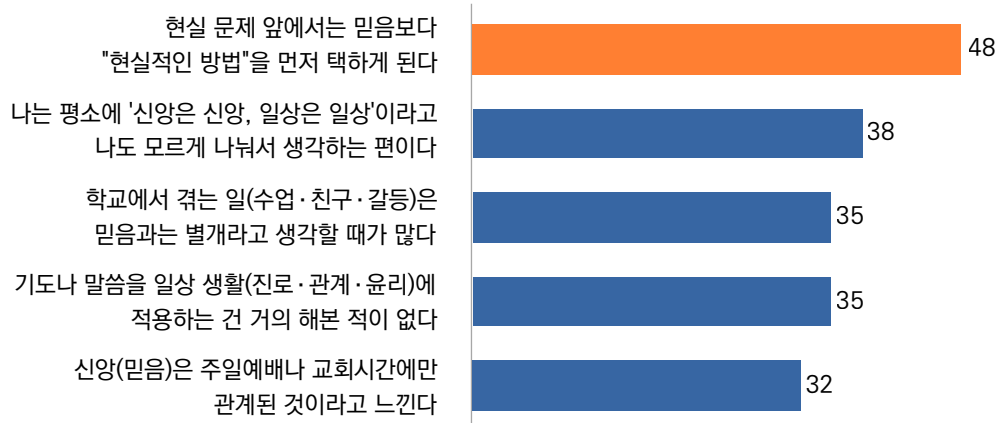
[그림] '전반적인 생활'에서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



기독교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 '신앙과 일상의 분리' 태도 보여!

- 신앙의 일상 적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기독교 중고생의 절반 가까이(48%)가 '현실 문제 앞에서는 믿음보다 현실적 방법을 먼저 택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신앙과 일상을 나눠 생각한다'(38%), '학교생활은 믿음과 별개'(35%), '기도·말씀을 일상에 적용해 본 적 거의 없다'(35%)가 모두 30% 중반 대로 집계되어, 기독교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이른바 '분리신앙'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앙의 일상 적용에 대한 인식 (교회 출석 중고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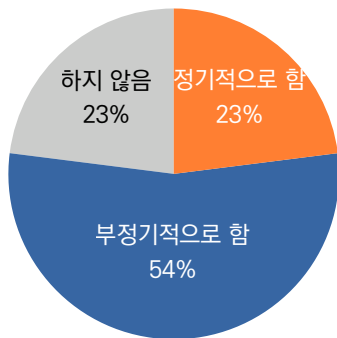


*5점 척도

정기적으로 성경적 가치관 교육하는 교회, 23%에 그쳐!

-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교회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성경적 가치관 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교회는 23%에 불과했다. 반면 ‘부정기적 실시’ 54%, ‘실시하지 않음’ 23%로 집계되어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체계적인 가치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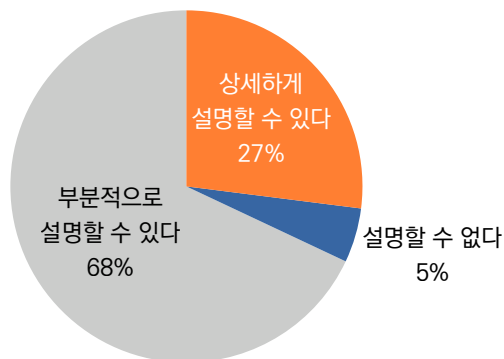
[그림] 교회학교 학생/학부모를 위한 성경적 가치관 교육 운영 실태 (담임목사, N=500)



성경적 가치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4명 중 1명에 불과!

-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은 결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응답은 27%에 그쳐 교사 4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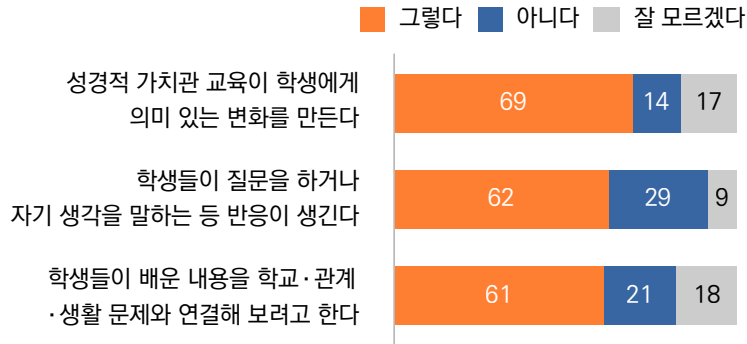
[그림] 성경적 가치관 개념 설명 역량 (교사, N=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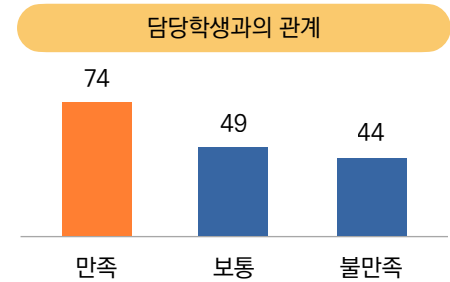
성경적 가치관 교육 시, 학생들 반응 ‘긍정적’!

- 교사가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할 때 학생들 반응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은 ‘학생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69%), ‘질문 등 학생들의 반응을 가져오며’(62%), ‘학교·생활 문제와 연결 시도까지 나아가는’(61%) 등 학생들의 긍정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 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다’는 비율은 교사-학생 관계가 ‘만족’일 때 74%로, ‘불만족’(44%) 대비 30%p 높았다. 이는 가치관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을 시사한다.

[그림] 가치관 교육 시 학생 반응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사, N=3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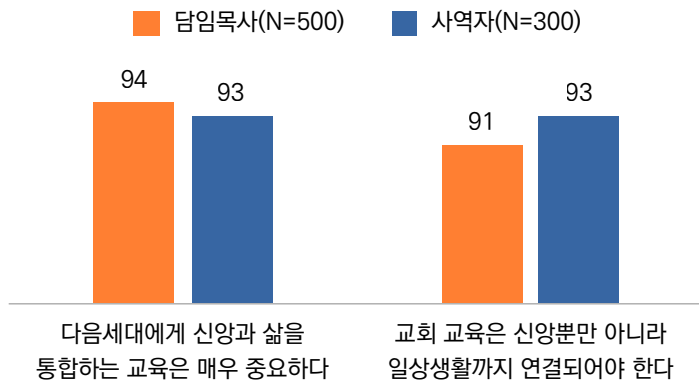
[그림] ‘성경적 가치관 교육이 학생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다’ 동의율 (담당 학생과의 관계,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사, N=373, %)



교회 교육, ‘신앙과 삶의 통합교육 시급’!

- 교회학교에서 실시되는 신앙-일상 통합 교육에 대한 담임목사·교회학교 사역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담임목사·사역자 모두 90% 이상이 다음세대에게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이 중요’하며, ‘신앙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연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그림] 신앙-일상(삶) 통합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이번호 요약

1.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 학교와 교회 가르침 사이 '세계관 충돌' 경험!

기독교 중고생(교회 출석자)이 실제 삶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것과 모순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주+가끔 그렇다)이 59%로 10명 중 6명꼴이었다.

2. 정기적으로 성경적 가치관 교육하는 교회, 23%에 그쳐!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교회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성경적 가치관 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교회는 23%에 불과했다.

3. 교회 교육, '신앙과 삶의 통합교육 시급'!

담임목사/사역자 모두 90% 이상이 다음세대에게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이 중요'하며, '신앙뿐 아니라 일상 생활까지 연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를 디자인하다 (익투스, 신국원 외 6명)

관련 성경 구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7절)

목회 적용점

이번 다음세대 기독교 세계관 조사 결과는 다음세대의 신앙적 위기가 단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통합적 가치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59%)이 학교와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하고, 3명 중 1명 이상이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교회 교육이 실제 삶의 판단 기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앙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과학, 윤리, 사회 등 학생들이 부딪히는 일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학생들이 신앙적 혼란을 풀어낼 수 있는 '안전한 질문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가치관 충돌을 겪은 상당수 학생이 판단을 유예하고 '혼자 고민한다'고 응답한 결과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이 고민하는 신앙적 의문들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회학교 내 목회자와 교사가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는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경적 가치관 교육을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핵심 교육 체계로 세워야 한다. 참고로 현재 정기적인 성경적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는 23%에 불과하다. 또한 교사의 설명 역량과 관계성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직결되는 만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가치관 교육, 교사 교수법 등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수련회 운영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동성혼 인식



2. 수저계급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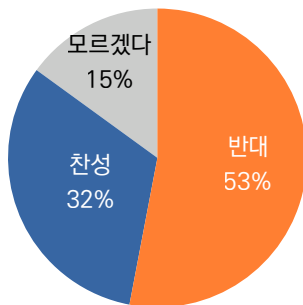


[한국인의 동성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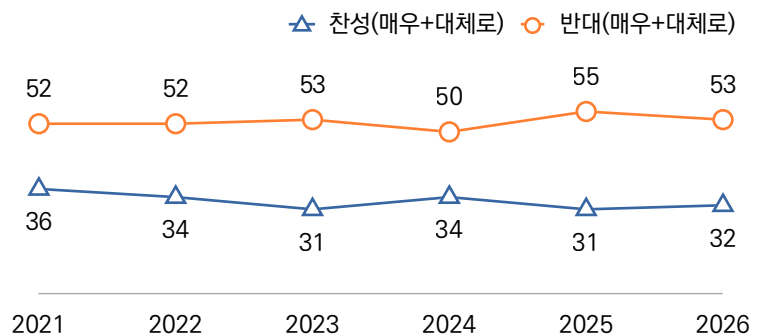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6년간 50%대 유지!

- 최근 발표된 '2026 성소수자인식조사' 결과(한국리서치) 중 동성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본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2026년 기준 '반대'(매우+대체로) 응답은 53%로 찬성 32%보다 높았다.
- 동성결혼 법적 허용 관련 인식 추이(2021~2026)를 살펴보면 2021년 해당 조사가 시행된 이래로 6년간 50%대를 유지하며 반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림] 동성결혼 법적 허용 인식
(2026, 일반 국민, N=1000)



[그림] 동성결혼 법적 허용 인식 (일반 국민, 각 조사별 1,00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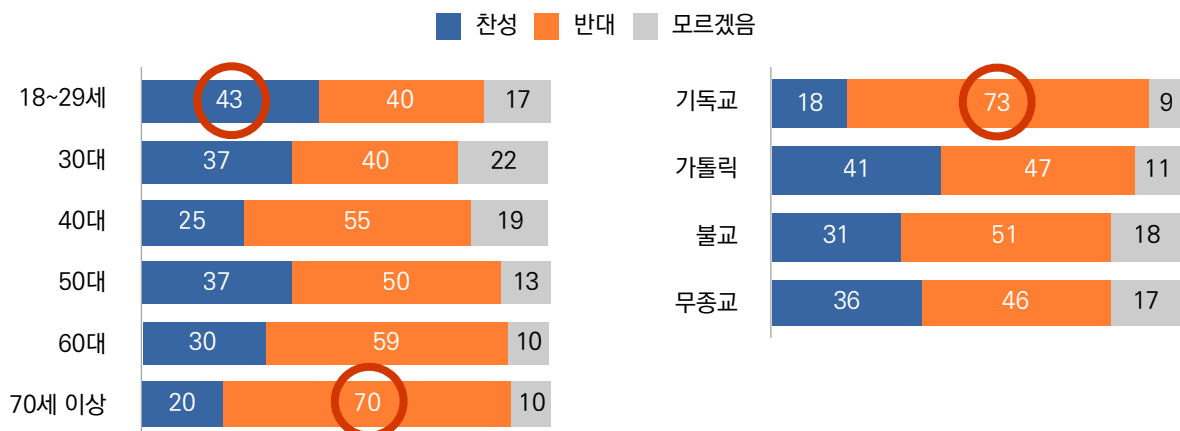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성소수자인식조사] 동성결혼 법적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 2026.08.18.(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5.22.~05.26.)

70세 이상·기독교인일수록 동성결혼 법적 허용 반대 높아!

- 동성애 법적 허용 인식을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반대 비율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60대(59%), 40대(55%), 50대(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18~29세'에서는 찬성(43%)이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나 유일하게 찬성 여론이 우세를 보였다.
- 종교별로 살펴보면 기독교인의 반대 응답이 73%로 주요 종교 중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47%), 불교(51%), 무종교(46%) 등 타 종교/무종교인의 반대 비율은 50% 안팎으로 기독교인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연령·종교별 동성애 법적 허용 인식 (2026, 일반 국민, N=1000,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성소수자인식조사] 동성결혼 법적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 2026.08.18.(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5.22.~0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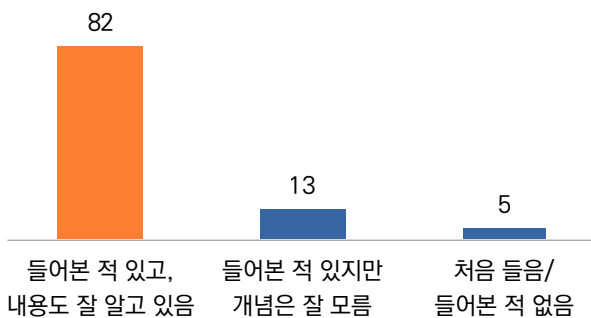


[수저계급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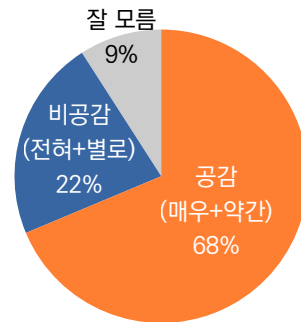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7명(68%), 부모 재력에 따른 ‘수저계급론’에 공감!

-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옛말이 되고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세습된다는 씁쓸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부모의 재력·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수저계급론을 알고 있는지 묻은 결과(엠브레인), ‘들어본 적 있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82%로 국민 대부분은 수저계급론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 수저계급론에 공감(매우+약간)하는 비율 또한 국민 10명 중 7명(68%)으로 비공감(22%)보다 3배 정도 높아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신분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수저계급론* 인지 여부 (2026, 만 13~69세 일반 국민, N=1200, %)



[그림] 수저계급론 공감 여부 (2026, 만 13~69세 일반 국민, N=1200)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수저계급론 관련 인식 조사, 2026.08.11.(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6.07.13.~2026.07.16.)

*‘수저계급론’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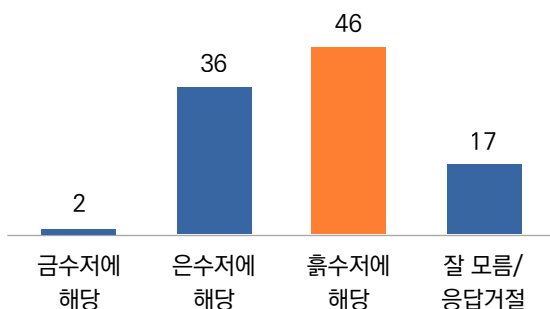
수저계급론이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재산과 지위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와 같은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것을 뜻함.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국민 절반 가까이, 나는 ‘흙수저에 해당’!

- 국민 스스로 자신의 수저계급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가 본인을 ‘흙수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저에 해당’ 비율은 36%, ‘금수저 해당’은 2%에 불과했다.

[그림] 수저계급 자가 평가 (2026, 만 13~69세 일반 국민, N=1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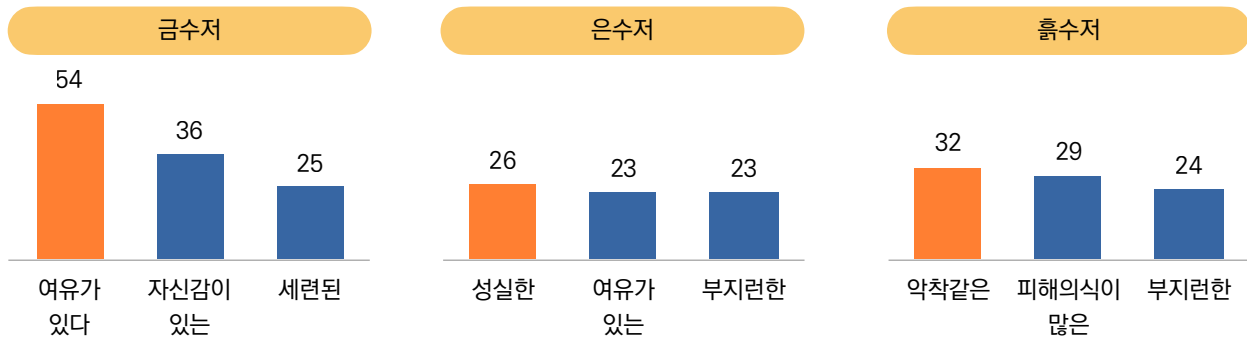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수저계급론 관련 인식 조사, 2026.08.11.(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6.07.13.~2026.07.16.)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금수저는 ‘여유’, 은수저는 ‘성실’, 흙수저는 ‘악착같은’!

- 각 수저계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연상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금수저’는 ‘여유가 있는’(54%)이 절반을 넘으며 가장 높았고, ‘자신감 있는’(36%), ‘세련된’(25%)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은수저’ 역시 ‘성실한’(26%), ‘여유가 있는’(23%), ‘부지런한’(23%) 등 긍정적 이미지를 주로 떠올렸다.
- 반면 ‘흙수저’의 경우 10명 중 3명 정도가 ‘피해의식이 많은’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연상 이미지 (2026, 만 13~69세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3개, N=1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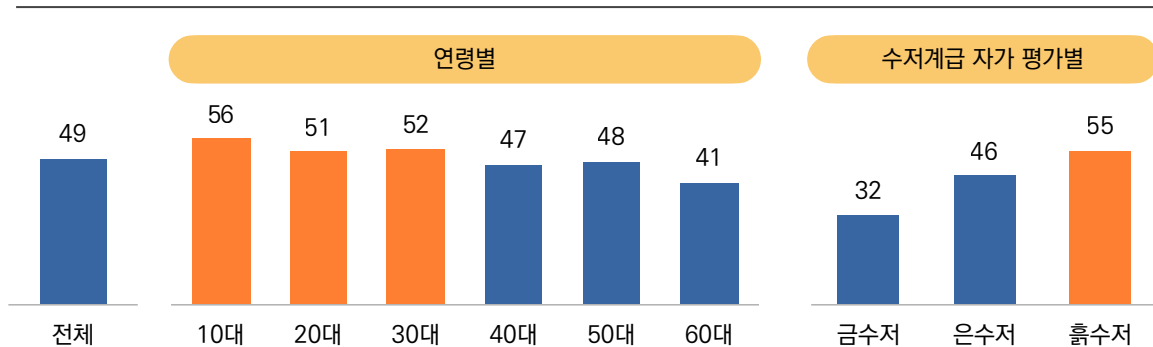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수저계급론 관련 인식 조사, 2026.08.11.(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6.07.13.~2026.07.16.)

30대 이하 젊은 층 절반 이상, ‘금수저의 재력 동경’!

- 금수저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면 ‘금수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재력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항목에 절반가량(49%)이 동의(매우+약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0~30대까지 젊은 연령층(51~56%)과 자신의 수저계급을 ‘흙수저’(55%)라 인식한 그룹에서 금수저의 삶을 선망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금수저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26, 매우+약간 그렇다*, N=1200, %)

나는 소위 금수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재력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수저계급론 관련 인식 조사, 2026.08.11.(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6.07.13.~2026.07.16.)

*5점 척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72호 (2026년 8월 3주)

- 경제, 주가지수 전망, 올해 국내 주식 투자 · 손익 여부

사회 일반

100세 이상 8천604명, 10년 새 2.7배로…남성은 3.3배 '쑥'

연합뉴스_2026.8.20.

서울 중장년 월생활비 얼마나 필요?…"최소 196만원·적정 321만원"

연합뉴스_2026.8.20.

술 줄이는 한국인…맥주·소주·막걸리 출고 일제히 감소

연합뉴스_2026.8.23.

경찰관 자살률 일반 공무원 두 배…전 직원 정신건강 살핀다

연합뉴스_2026.8.20.

280만원 밥그릇, 530만원 이동가방…"개팔자가 상팔자 맞네"

중앙일보_2026.8.19.

[2026 성소수자인식조사] 동성결혼 법적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8.18.

2026 주류 vs 비주류 문화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8.18.

아동 · 청소년 · 청년

초등생 절반은 "걸으며 스마트폰 사용"… 눈높이 낮아 사고위험 커

동아일보_2026.8.21.

"용접 배워서 취업하려고요"…전공 버리고 기술 배우는 취준생들

MBC뉴스_2026.8.17.

구직 청년 64% "희망 직무 5년 내 AI로 대체·축소될 것"

연합뉴스_2026.8.18.

6.6억 vs 844만원…청년, 출발선부터 78배 벌어졌다

중앙일보_2026.8.24.

노인

자식 용돈 줄고 공적연금 늘어…노인소득 10년 새 79% 증가

연합뉴스_2026.8.2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체력 상위 20%, 하위 20%보다 사망위험 61% 낮아

데이터숨_2026.8.18.

경제 · 기업

제조기업 10곳 중 8곳 "피지컬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

연합뉴스_2026.8.20.

국제 · 환경

"한국인들, 낭비 제일 심하다" 1년 치를 '40일' 만에 탕진...전부 빚내서 쓴다고? [지구, 뭐래?]

헤럴드경제_2026.8.18.

미국인 63% "트럼프, 가상화폐로 부당하게 돈 벌었다"

연합뉴스_2026.8.20.

후쿠시마 오염수 3년간 13% 방류...어획액, 사고前 절반으로 늘어

연합뉴스_2026.8.23.

건강

'살 빼는 약' 먹었는데 다시 찼다면...자살 생각 4배 ↑

연합뉴스_2026.8.23.

"젊다고 방심했더니"... 2040 대상포진 환자 급증세

스포츠동아_2026.8.18.

50대에 '3가지'만 피하면...치매 13년 늦춘다

한겨레_2026.8.19.

日 연구진, "반려견과 사는 고령자, 치매 위험 48% 낮아"

중앙일보_2026.8.20.

기독교 · 종교

복음에 대한 확신 53% 그쳐...다음세대 신앙 '경고등'

데일리굿뉴스_2026.8.19.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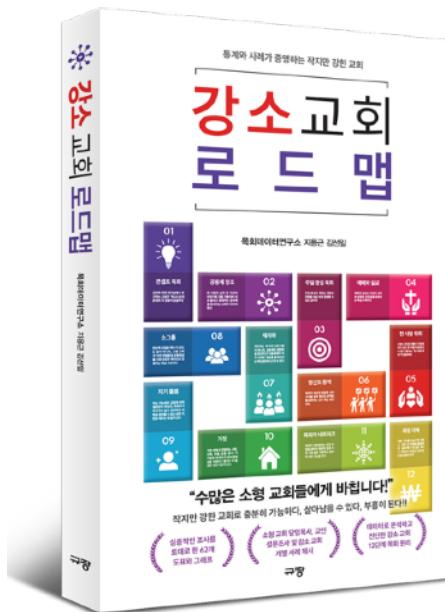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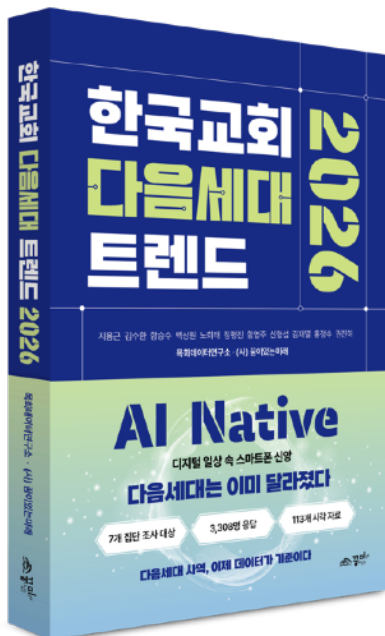


「강소교회 로드맵」 (출간일 : 2026.06.30.)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 나아갈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형교회 담임목사·교인 설문조사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강소교회의 12가지 목회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출간일 : 2026.05.20.)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 사역의 10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담임목사 등 총 7개 집단 (총 3,308명)을 동시에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후원자 배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온라인 양성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8월 27일(목) 19:00~21:50
- 2)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 3) 강사 : 우명훈소장(세바시연사 코치)
- 4)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5) 참가비 : 3만 5천원 (구독 교회는 2만원)
- 6)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